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28.(금) 10:00 배포 2025. 11. 28.(금) 08:00

“정보 무결성, 국가 간 협력해야”

- ‘2025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해외 각국 대응 방안 공유 -

국가 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및 사회 구성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8일 서울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정보 무결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주제로 ‘2025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인공지능 시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보 무결성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KMCC)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등 국내·외 연사와 미디어 정책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과 세션 발표,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샤를 보비옹(Charles Baubion) 정보무결성 총괄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정보 무결성 강화: 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진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정보 출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국제 허브를 목표로 2015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앤지 드롭닉 홀란(Angie Drobnic Holan) 국장은 온라인 세션 발표를 통해 소속 기관의 정책을 소개하며,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은령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현 IFCN 이사)는 허위정보 대응 핵심은 사실확인(팩트체킹)이며, 이의 핵심 축으로 독립적 거버넌스를 구축,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정보 무결성을 제시했다.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캘리 머드포드(Kelly Mudford) 허위정보·플랫폼 부서장은 호주의 '허위·잘못된 정보 근절 실천 강령' 개발 과정을 설명하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수익 차단 등 실천 강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정책원구원(KISDI) 김현수 박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주제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억제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유통 촉진을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후에는 '온라인 정보 무결성 확보를 위한 사회 구성원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고려대 이헌율 교수를 좌장으로 정보통신정책원구원(KISDI) 조성은 연구책임자, 김가연 엑스(X)코리아 상무, 박세용 에스비에스(SBS) 기자, 이경락 와이티엔(YTN) 저널리즘연구소장, 김세진 인천신정초등학교 교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정보 무결성 확보를 위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발제 및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대하고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실천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2025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안내 전단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허위조작정보정책팀	책임자	팀 장	박강욱 (02-2110-1640)
		담당자	사무관	김상엽 (02-2110-16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 **'2025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안내 전단**

